“마음까지 따뜻해져”…K-사찰음식에 매료

10월 4~5일 수원 봉녕사 일원에서
‘사찰음식대향연’ 개최…15회 맞아
경연대회, 강좌 등 프로그램 다채
“사찰음식 만드는 것 자체가 수행”

수원 봉녕사=김민재 기자



‘2024 봉녕사 사찰음식 대향연’이 10월 4~5일 양일간 수원 봉녕사 일원에서 열렸다. 사진은 사찰음식경연대회에 출품된 작품을 찍는 관람객의 모습.

천고마비(天高馬肥)의 계절인 가을, 수원 봉녕사 경내에는 사찰음식 향연이 펼쳐졌다. 곳곳에서 퍼지는 사찰음식 향기는 사람들의 입맛을 돋우기에 충분했다.

사찰음식의 진수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2024 봉녕사 사찰음식대향연’이 10월 4~5일 양일간 수원 봉녕사(주지 진상 스님) 일원에서 열렸다. 2009년에 시작해 올해 15번째를 맞이한 ‘사찰음식대향연’은 봉녕사가 수행식이면서 자연식인 사찰음식을 일반 대중이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행사는 사찰음식경연대회로 막을 열었다. 스님 7팀, 재가자 10팀이 참여해 ‘사찰의 자연발효음식’을 주제로 ‘1700년 지혜의 사찰김치’, ‘행복한 발효, 건강한 사찰음식’,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사찰발효음식’ 등 다채로운 사찰음식이 선보였다.

심사기준은 삼덕(三德)으로 ‘청정(淸淨)’ ‘유연(柔軟)’ ‘여법(如法)’이 제시됐다. 봉녕사 주지 진상 스님은 “재료 자체가 깨끗하고 신선한 ‘청정(淸淨)’, 제철재료가 없어도 발효음식으로 식사를 할 수 있는 ‘유연(柔軟)’, 모든 생명을 위하는 부처님 법에 맞는, 여법(如法)한 음식인지가 심사 기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스님은 “사찰음식은 만드는 것 자체가 깨달음을 위한 수행”이라며 “불음주(不飮酒) 및 채식 등 스님들은 음식을 맛을 위해 먹는 것이 아닌 ‘약’으로써 먹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연대회에 이어 대적광전에서는 ‘비빔밥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봉녕사 주지 진상 스님, 봉녕사 승가대학 석좌교수 도혜 스님, 이재준 수원시장 등 내빈들이 도라지, 무생채 등 각종 나물과 따끈한 밥, 자연 발효 고추장이 담긴 솥을 주걱으로 섞으며 모든 대중의 화합을 발원했다. 우화궁 앞에 마련된 특설무대에서는 사찰음식 장인 성견 스님의 ‘약념-마음을 담다’를 주제로 ‘김부각, 김자반 만들기 사찰음식실습강좌’가 진행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도 했다.

사찰 곳곳에는 채식만두, 비빔밥, 채식김밥, 채식만두, 수수부꾸미, 연화빵, 연꽃차 등 스님과 재가자들이 정성껏 준비한 사찰음식 먹거리 부스가 마련돼 눈길을 끌었다. 이날 준비된 사찰음식은 까다로운 천진불들의 입맛까지 사로잡았다. 재량 휴업일로 이른 아침부터 봉녕사를 찾은 김다솔(10, 평택 청옥초, 선재선원) 어린이는 “원래 사찰음식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는데 막상 먹어보니 맛있었다”며 “특히 채식 만두가 좋았다. 동네 만두는 너무 매운데, 사찰 만두는 맵지 않고 달콤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차(茶)를 통해 마음을 정화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봉녕사 율주 적연 스님이 진행하는 ‘차명상’은 봉녕사 우화궁 앞 특설무대에서 진행됐다. 적연 스님은 “차 속에 있는 ‘데아닌’이라는 성분은 우리 몸을 편안하게 해 지혜를 증장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며 “찻잔을 몸으로 찻물을 마음으로 생각하며 한모금 차를 마셔보기를 바란다. 아마 마음이 맑아지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24 봉녕사 사찰음식 대향연’은 10월 5일까지 이어졌다. 이튿날에는 사찰음식 경연대회 시상식, 육법공양, 탁발순례, 불교전통문화 시연 및 체험, 비천무 예술단·봉녕사 우담화합창단의 문화 공연, 법송 스님의 사찰음식실습강좌 등이 진행됐다.

“참나 찾아 떠나볼까”…명상 축제 열린다

한국명상심리상담학회
10월 28일~11월 9일
상담 · 야외명상 · 강연회



다양한 명상 프로그램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참나를 찾는 명상 축제가 열린다.〈사진〉

(사)한국명상심리상담학회(회장 손강숙)가 10월 7일 서울 인사동의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용과 통찰’을 주제로 ‘2.0 명상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스트레스에 노출된 현대인들이 명상을 통해 마음 건강을 돌보고 진정한 본성인 ‘참나’를 찾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페스티벌은 한국명상심리상담학회와 목우선원 명상상담 평생교육원 공동 주최로 10월 28일부터 11월 9일까지 2주간 서울 목우선원, 온라인 플랫폼(ZOOM), 경기 양평 수풀로 양수리 공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전에는 그림 그리기, 글쓰기 등 예술활동에 집중한 기존과 달리 이번 페스티벌은 오롯이 ‘명상’에 초점을 둬 눈길을 끈다.

페스티벌 프로그램은 고통을 ‘수용’하고 ‘통찰’하여 진정한 나를 만날 수 있게 구성됐다. △개인별 명상상담: 적극적 건강을 향하여 △온라인 줌강연회: 행복으로 가는 명상상담 △실내 명상체험마당: 너하고 나하고 함께 △야외 힐링명상: 맑은 공기, 아름다운 강물로 등 총 4개로 이뤄져 있다.

인경 스님은 “현대인들이 경쟁으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고통받고 있다”며 “스트레스를 조금 내려놓고 자기 안에서 휴식을 취하길 바란다”고 기대를 전했다.

페스티벌 신청 마감은 10월 25일 오후 6시까지며, 한국명상심리상담학회(http://www.mpca.or.kr)나 명상상담평생교육원(http://www.medicoun.com)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명상 페스티벌에서 발생한 수입금은 모두 외국인 대학원생 장학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02-2236-5306 김민재 기자

성북구사찰聯, 풍성한 문화 한마당 열다

‘제1회 사찰음식축제마당&왕실다례 재현’

10월 6일 서울 흥천사 경내서
진전다례 재현, 문화공연까지
사찰음식 전시, 체험, 시식도



가을 정취 가득한 10월, 역사와 문화, 사찰음식까지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풍성한 축제가 열렸다.〈사진〉

성북구사찰(사암)연합회(회장 원경 스님, 심곡사 주지)가 10월 6일 서울 흥천사 경내에서 ‘제1회 사찰음식축제마당&왕실다례 재현’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불교와 한국의 역사·전통문화를 불자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 알리고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성북구사찰(사암)연합회장 원경 스님은 개막식에서 “전통은 고루한 것이라는 오류에서 벗어나 과거의 미풍양속을 현대사회에 접목시키며 전통문화 가치를 재현해야 한다”며 “그런 전통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인사 했다.

전통 다도 교육을 받은 다인(茶人)들로 구성된 ‘감로 다도회’의 주관으로 ‘왕실다례 재현’ 행사가 시작됐다. 이번에 재현되는 왕실다례는 ‘진전다례’다. 진전은 진(眞)이라 불리는 국왕의 초상화를 봉안하고 제사를 지내는 전각이며, 술 대신 차를 올려 ‘진전다례(眞殿茶禮)’라고 한다. 〈조선왕조실록〉에는 1396년(태조 5년) 신덕왕후의 정릉 옆에 왕실 원당인 흥천사가 창건됐는데, 이곳에 조선 태조의 아버지 ‘환왕’을 위한 진전을 세웠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웅장한 궁중제례악을 시작으로 왕과 왕비가 대신과 상궁, 나인들과 함께 흥천사 극락보전에서 상부 주차장에 마련된 특설무대까지 행차했다. 이들은 특설무대 제단에서 △네 번 절하는 사배례(四拜禮) △다례 올리기 전 손을 씻는 관세의식 △차를 올리는 연헌삼작(連獻三爵) △향을 올리는 삼상향(三上香) 재차 사배례 등을 행하며 진전다례 재현을 진행했다.

흥천사 주지 각밀 스님은 “흥천사에서 왕실다례 재현 행사를 거행하는 것은 전통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전통문화의 새로운 계승·발전을 위한 뜻 깊은 시도”라고 말했다.

다채로운 사찰음식을 한자리에서 체험·시식할 수 있는 ‘사찰음식 축제마당’도 열렸다. 행사에는 심곡사를 비롯한 성북구 사찰 8곳(흥천사, 경국사, 관음사, 보덕선원, 방생선원, 수월암, 운선암)이 참여해 풍성함을 더했다. 전통두부·연잎밥 만들기 체험 부스와 가지채소말이, 오이땅콩탑, 쌈밥, 더덕삼색무침 등 총 15개의 사찰음식 전시·시식 부스가 흥천사 곳곳에 세워졌다. 김민재 기자

로터스월드, 미얀마 태풍피해 긴급지원

10월 1일~11월 30일 캠페인
식량, 식수, 재건축 등 후원



로터스월드가 올해 9월 초, 11호 태풍 ‘야기’로 피해를 입은 미얀마를 위해 긴급 지원에 나섰다.〈사진〉

로터스월드(이사장 성관 스님)는 ‘미얀마 태풍피해지원캠페인-미얀마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를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전개한다.

미얀마는 태풍 야기로 전국에서 총 300여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농경지와 주거지도 수십만 에이커(acre, 1에이커=약 1223평)가 침수되면서 약 5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태풍피해가 심각해지자 미얀마 정부는 이례적으로 로터스월드 미얀마 지부에 긴급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로터스월드는 9월 22일 미얀마 수도 네피도 일대에 긴급지원팀을 신속하게 파견해 깬지, 떼야아웃, 레빤부 마을 등 총 457가구, 1300여 명에게 생수 6000병, 라면 1500개 등을 1차로 지원했다.

1차 지원에서 로터스월드 미얀마 지부가 확인한 피해 상황은 심각했다. 가옥이 파괴된 이재민들은 비닐천막에서 생활하고 식량, 의복 등의 지원이 턱없이 부족했다. 로터스월드는 이들에게 지속적인 식료품·식수 지원을 위해 후원 캠페인을 시작했다.

후원금으로는 수해에 가장 취약한 빈민층과 아동·청소년을 위한 쌀, 식료품, 식수 등이 포함된 식량키트를 지원할 계획이다. 미얀마 현지 지자체와 협력해 취약계층 수해 지원 활동도 진행한다.

후원계좌 : 농협 301-0059-6339-11 (예금주, 로터스월드) 김가령 기자



가정에서도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당연하게 여겼던 사찰에서의 수행이 어려워진 요즘,
꼭 어딘가에 가지 않더라도 가장 편안한 공간에서
불자분들의 수행이 계속될 수 있도록

가정용 수행 용품을 붓다북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불교서적 | 불교용품 | 명상음반
www.buddhabook.co.kr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돈암동일하이빌 B1 ㈜운주사
Tel. 02-953-7181
법보시용 대량 주문은
전화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제12회 묘엄불교문화상 후보공모

세주 묘엄 명사스님의 유지를 받들기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 묘엄불교문화재단에서는 불교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를 선발, 표창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상 후보를 공모합니다.

공모기간 2024년 10월 10일(목) ~ 10월 31일(목)

시상내역 2명(또는 단체), 각 상장 및 1천만원 상금

추천자격 및 선정기준
1. 불교교육, 포교, 수행, 불교학술, 불교예술 등의 분야에서 열악한 여건 속에서 의미 있고, 뛰어난 활동을 다년간 지속해온 결과, 불교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로서, 그 활동으로 인해 최근 5년간 다른 기관(재단)으로부터 수상한 적이 없는 후보를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2. 단체는 설립된 지 5년 이상이고, 회원 30명 이상인 곳이어야 하며, 근거자료와 함께 그 동안의 활동업적이 첨부 되어야 한다.

접수 및 문의
- 접수방법 : 직접, 우편 및 온라인접수
- 접수양식 : 묘엄불교문화재단 카페에서 다운로드 (http://cafe.daum.net/myoeom.org)
- 접 수 처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1길 20, 3층 화인빌딩 법무법인 천우
- 문 의 : 사무직원 윤선웅 yoon1910@nate.com

※자세한 사항은 묘엄불교문화재단 카페 참조

수상자 발표
- 개별통지 후 재단 카페에 공지
- 시 상 식 : 2024년 12월 7일(토) 오전 10시 수원 봉녕사 대법당 세주 묘엄 스님 제13주기 추모다례재일

재단법인 묘엄불교문화재단